

컴퓨터 왜 늦나 했더니...

'한글 주소창' 업자들 프로그램 사제 경쟁 넷피아·아이이지소프트 등 3개업체 적발

서울중앙지법 첨단범죄수사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와 일반 네티즌의 업무를 방해한 '한글 주소창' 사업자인 넷피아와 아이이지소프트, 디지털네임즈의 임직원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넷피아는 2004년 3월부터 1년 간 자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디지털네임즈 프로그램을 훼손하고 재설치를 차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러그인(plug-in)은 독립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웹 브라우저와 함께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디지털네임즈와 아이이지소프트도 넷피아와 마찬가지로 자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삭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악성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인 'PC클린'('넷피아') '다잡아'('아이이지소프트')에 상대방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인식해 제거하는 기능을 깔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세 업체가 서로 상대 업체 프로그램 설치를 방해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일반 사용자는 컴퓨터 부팅이 느리고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에 장애가 생기는 등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셈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리니지 2' 개인정보 유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줘라"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이용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회사 실수로 유출된 데 대해 게임업체가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정보보호 등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 파일에 저장되도록 컴퓨터에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회사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고, 현실적·경제적 손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버려진 아이들 가족 만들어 주기 운동 김판석씨의 가정의 달

'저버린 天倫'... 人倫으로 맺어야죠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가족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있다. 두 남매의 아버지 그의 큰 딸도 입양한 딸이다.

그에게 2006년 '5월 가정의 달'은 각별하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전개해온 '1+1' 운동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1+1' 운동은 한 가족(1)이 한 아이(1)를 입양,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다.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은 보건복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 일년 반 뒤, 아들 슬하를 낳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주자'며 지난 2001년 '입양문화원' 홈페이지(www.acuin.net)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입양문화 만들기·입양기사 보기·육아일기·입양가족 모임·부모권지 정보·미혼엄마 양육권 운동 코너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입양 중단'에 대한 설문 결과는 찬성 73.5%, 반대

한 가족이 한 아이 거두는 '1+1운동' 5년째 전개

김씨 노력에 복지부도 11일 '입양의 날' 첫 지정

지부는 올해부터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했다.

광주 보건병원에 근무하는 김판석(41·원무과)씨는 지난 99년, 태어난 지 10개월 된 승유를 나주 '이화 영아원'에서 데리고 왔다. 그곳에서 3년째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아내가 딸 아이를 입양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김씨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의 천진 무구한 눈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국내에 갈 곳이 없어 미국과 유럽으로 해외입양되는 아이들도 많다는 사실엔 말문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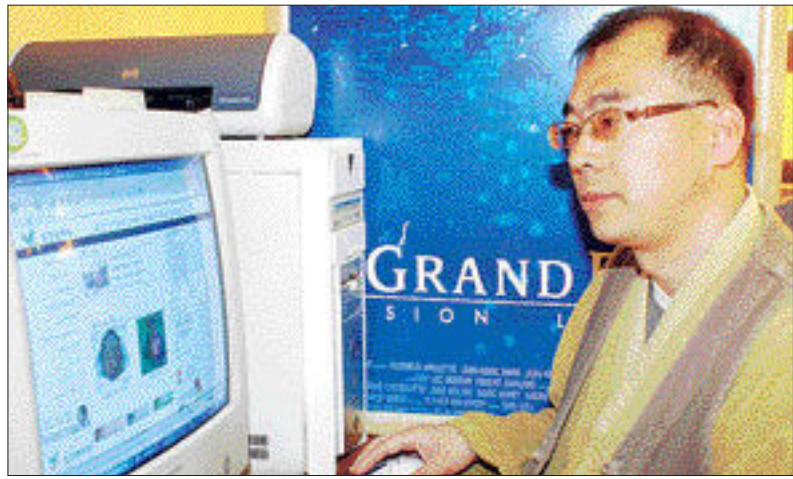
승유(8)를 입양한 후 김씨 부부는

26.4%로 나타났다.

승유를 키우면서 생긴 일을 꼼꼼히 적은 '육아일기'도 공개하고 있다. 2004년 11월4일의 일기는 다음과 같다. '날씨 맑음-할머님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자!! 양-양-승유야! 매일 과자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승유도 기쁘게 있는데...누나가 이렇게 하면 꽤...'

그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 운동인 '1+1'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은 4월 말 현재 3천700여명. 읍몰에서는 하루에 40~50명 정도가 꾸준한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홀로 아이를 낳아 혼자 끙끙대던 미



입양운동 '1+1'을 펼치고 있는 김판석씨. 김씨는 '가정의 달'인 5월, 불우시설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말한다. 아래는 김씨가 운영하는 '입양문화원' 홈페이지(www.acuin.net).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혼모들도 조심스레 이곳을 방문, 고민을 털어 놓고 있다. 그의 개인 홈페이지는 이제 입양 장려 운동을 넘어서 입양 가족들의 정보교환의 사랑방이 된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김씨는 부모없이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과 형제자매를 만들어주자고 강조한다.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에 버려진 생명이 있다면 해외에 입양 보내기 보다는 국내에서 입양하는 게 더 좋죠. 이것이 '건강한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1천461명이며, 광주·전남에선 92명이 새 부모를 찾았다. 해외입양은 2천101명으로 국내입양보다 많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해킹 프로그램 이용 29억 부당이득 인터넷 현금도박 첫 적발

상대방의 패를 훤히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현금도박을 벌인 운영자 입양이 처음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달 30일 현금을 걸고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11월 캐나다에 카지노사이트를 개설, 멕시코에 서버를 두고 스크램블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회원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채우는 방식으로 포커와 고스톱 등 도박을 알선한 혐의다.

김씨 등 운영자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과 직접 현금도박을 하거나 승자에게 수수료 5%를 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도박 프로그램은 유명 게임포털사이트에서 8천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해킹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것이다.

회원 8만명을 보유한 이 사이트에서 현금도박을 해 돈을 잃은 회원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잃은 여성과 1억여원을 날린 대기업 직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천 노숙자 또 엽기 피살

노숙자를 살해하고 성기를 잘라낸 엽기적인 사건이 광주에서 다시 발생했다. 지난 2001년 6월16일 광주천 양림교 밑에서 60대 노숙자가 살해된 지 5년만이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노숙자이고, 발생장소는 광주천이며, 성기를 잘라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01년 사건은 아무런 단서를 잡지못해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지난달 29일 새벽 5시에 광주시 북구 임동 동무등경기장 수영장 건너편 다리 밑에서 조모(5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 한모(2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자정께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며 "새벽 4시50분께 예매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동생과 함께 전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사람이 죽어있었다"고 말했다. 조씨의 얼굴에선 둔기로 얻어맞은 상처가 발견됐으며, 성기는 모두 잘려나간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잘려나간 조씨의 성기와 길이 30cm의 쇠틀을 발견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달 28일 밤 9시까지는 살아있었다"라는 노숙자 이모(54)씨의 진술에 따라 이날 밤 9시 이후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남아있는 발자국 모양으로 미뤄 용의자가 남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감식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침 (6817) 김동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10대 무면허 트럭에 부딪혀 숨져

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않고 오토바이를 타던 고등학교생이 무면허 운전사가 모는 트럭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29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삼익아파트 입구에서 송모(18·S고등학교 3년)군이 오토바이를 몰다 좌회전하는 광주89나32×(운전사 김모·45) 1t 포터 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송진 송군은 면허를 탄 적이 없었고, 운전사 김씨는 지난 94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죽마고우' 딸 술김에 성추행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34년간 사귀어온 '죽마고우'(竹馬故友)의 딸을 술김에 강제로 성추행한 40대가 친구 가족의 신고로 달미.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북구 정모(42)씨 집에서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초등학교 4년생 친구 딸(11)의 팬티를 벗기고 몸을 만진 김모(42·장성군 진원면)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평소와 '삼촌'이라고 잘 따랐던 친구의 딸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뒤늦은 후회.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신개념의 의자 하라체어 15% 오프
세계최초 국내최대 발명특허 의자. 미국 FDA 의문기기 승인
2006.3.10 ~ 3.11 특공대 방영
1. 100% 국내 생산
2. 100% 국내 기술
3. 100% 국내 디자인
4. 100% 국내 제조
5. 100% 국내 유통

www.haratelch.co.kr www.vetelco.co.kr

제일모직 outlet 전매원구 시거리
60~40% 할인
제일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학원생 1명 가족으로 2명 혜택

www.outlet.com